

현대불교

3대째 오로지 전통 수제 떡볶이를 고집하는
지리산 아상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 지정 한국전통식품개발 사업제
 ● 우리 차문화의 계승확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0595183-9665 / 83-3478

고객을 크게 서비스하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 비자가 크레딧 카드로
 대입하는 학생금리로
 ● 교육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용서비스 제공
 국민은행 080-8273-4000

명예회장: 노태평 / 발행인: 김권진 / 편집: 김광삼 / 논설: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0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11월 15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금주의 법구
 지리산 세상에 오고감을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집아현경)

법회 안내

- 용천사 (02)872-6367
 초하루법회 매월19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9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어조사법회 매월 일 오전10시
 청소년법회 매월 일 오후2시
 중앙포교회관 (02)623-0241
 어린이법회 매월 일 오전9:30분
 중고생법회 매월 일 오전11시
 청년부법회 매월 토 오후4시
 합창단법회 매월 토 오후2시
 방생법회 매월 첫째 화 오전8시
 대덕사 (02)765-6972
 합창단법회 매월 월 오후1시
 어린이법회 매월 일 오전10시
 학생법회 매월 일 오후1시
 청년법회 매월 화 오후7:30분
 수진사 (0346)591-7710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1시
 지장법회 매월 19일(음) 오전11시
 마하연 포교회(032)513-5328
 초하루법회 1~3일(음) 오전10시
 일요가람법회 일 오전10:30분
 청년부법회 매월 수 오후7시
 중·고생법회 매월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월 일 오후2시
 예천 포교회 (0584)654-6788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1시
 청년법회 매월 수 오후8시
 중·고생법회 매월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월 일 오전11시
 인천 무량사(032)575-3882
 가람법회 매월 셋째 일 오후5시
 중·고생법회 매월 토 오후6시
 어린이법회 매월 일 오전11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계좌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11-0255243

'억불승유' 뒤집을 부장품 발견

과주 4백50년 미이라... 조선불교 획기적 연구자료

조선 전기는 억불승유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획기적인 부장품이 발굴됐다. 지난 6일 경주 정씨 중헌회가 경기 과주군 선산에서 조선 조 중종 때 정5품 벼슬 '찬의(贊議)'를 지낸 정은(鄭溫)의 묘소 이장작업을 하던 중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불상과 다라니가 찍힌 옷가지 30여점이 발견되어 불교계와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유물은 4백50년전 매장될 당시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단저고리와 치마, 용도를 알 수 없는 옷가지 4점에 목관본으로 추정되는 불상, 다라니 등의 만다라가 찍혀 있다. 특히 비단저고리와 앞 가슴 양쪽에 각각 불상과 비천상이 붉은 색으로 선명히 인쇄되어 있고 아래부분에는 등근 원형속에 '을 마니 반에 흘' 진언이 번여로 새겨져 있다. 치마에는 다라니 경판 4쪽이 찍혀 있으며 무명 천에도 부처 형식의 다양한 만다라가 찍혀 있다. 또한 목관 내부도 목관본 불상, 다라니가 찍힌 화선지로 사발을 장식하고 있어 학계는 불교 미술사와 의식사, 경판의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보고있다. 경주 정씨 중헌회로부터 유물을 기증받아 보존처리를 하고 있는 단국대 박물관 박성실 연구실장은 "출토복식 가운데 다라니 경판이 찍힌 것은 처음으로 이번엔 발견된 옷은 수의가 아닌 생활복이어서 당시 불교생활상과 복식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박성실장은 "옷에 경판이 쓰여있는 것은 상원사에 보관중인 세조 어의(보물 제793호)가 유일하다"며 "정은의 옷가지는 보물급 이상의 귀중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민요 연구가 김우림(고려대 박물관)씨도 "관의 내부에 불상과 다라니 경판이 찍힌 예는 학계에 보고조차 되어있지 않다"며 "글씨가 아닌 목관본인 것은 조선 전기까지 수의와 관에 다라니를 찍는 정예문화가 성행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불교미술사가 이기선씨는 옷과 관에 다라니를 새기는 것에 대해 "다라니는 사신과 용액에 나쁜것이 끼지 않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것으로 관 자체가 곧 반야공성을 의미한다"고 소개했다. 이기선씨는 "정은의 옷과 관에 새겨진 경판은 현재에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양식으로 고려시대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과주에서 발굴된 다라니 수의는 단국대 박물관이 보존처리를 마치고 내년 5월경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 조선 중종때 묘소에서 불상·다라니가 찍혀진 옷가지가 발견되어 학계 불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 원담스님은 부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설법했다.

"부처님 가르침 실천합시다" 수덕사 원담스님 친견 법회 150여불자 동참

"모든 법이 부처님이다.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은 부처요. 모르면 중생인 것입니다." 지난 4일 오후1시 현대불교 신문 창간 1주년을 맞아 기획한 '조계종 4대총림 방장스님 친견법회'를 위해 전국에서 수덕사를 찾은 1백50여 불자들에게 원담스님(덕숭총림 방장)은 이렇게 법어를 내렸다. 원담스님은 "부처님은 항상 수많은 중생들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되어 어두운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다"면서 "많은 중생들은 친절하게 이끌어주시는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은혜를 알고 가르침을 실천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했다. 이날 동참자들은 "오늘 큰스님의 법문은 답답했던 마음의 한구석을 풀어주어 시원했다"며 법회가 끝난 후 남동계 들은 은행일이 하나를 떨어지는 대웅전 앞뜰에 모여 원담스님과 함께 기념촬영도 했다. ▲ 3차 11월 18일(토) 조계총림 송광사 승찬 방장스님 ▲ 4차 11월 25일(토) 해인총림 해인사 해암 방장스님

창간 1돌 독자사는 '전국 전통사찰지도' 배포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주년을 기념해 독자사에 뜻으로 제작한 '전국 전통사찰안내도'를 분기 53호와 함께 구독자에게 배포합니다. 전국 전통사찰 안내도는 국내 8백52개 전통사찰을 총망라해 한눈에 찾기 쉽게 지도로 담았습니다. 을 할라로 된 사찰지도는 뒷면에는 수록된 사찰 전체를 가나다 順으로 사찰명과 주소를 일일이 기입, 색인하였으며, 뒷면에는 서울 조계사와 인사동을 중심으로한 불교문화지도를 실어 다양한 신행·문화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크기: 4X6 2절 속삭: 1/80만 축소) ■ 보급: 일반인에게는 책방 여시아문에서 유가 판매합니다. 문의: (02)737-0695 ■ 국립지리원의 인도사용 승인 및 교정작업의 지연으로 예정보다 1개월 가량 발송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부록 전국 전통사찰안내도 발간

고 있는데 저는 불승수녀원에 있으므로 본이 없습니다. 그 사연을 편지로 전했더니 '현대불교'에서 기증 약속을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입게 돼 감사드리려고 왔습니다. 매달이 많은 안해도 불교책 1~2권을 갖고있을 겁니다. 불교를 통해 제 종교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가슴이 설레입니다. 책을 통해 만났고, 사자

하나님은 못 만나고...
 저는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은 제가 '다른 반란'을 먹고 있는줄 다 압니다. 만나야 할 하나님은 못 만나고, 불교에 지루한 마음이 겁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자

신을 통해 편지와 전화로 제 마음을 전한 대령스님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녀의 말은 교훈이었습니다. 불교의 우월성을 내세우기에 앞서 부끄러웠다. 우리 불자들은 다른 종교를 과연

선학원 독자노선 움직임

9일 전국 분원장회의서 대다수 찬성

선학원은 지난 8~9일 양일간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분원장 회의를 개최, 분리 독립 논의등 재단 현안에 관한 심도 깊은 토의를 가졌다. 9일 오전 비공개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1백30여 분원장들의 참석 대다수가 "조계종의

선학원 상무이사 법진스님은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으나 조계종의 일방적 관장하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경주=이윤호 기자)

법안관리법이나 징계방식에 승복하지 않고 선학원이 독자노선을 걸어야 한다"는데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회의 결과는/조계종 119회 정기총회중에서 법안관리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선학원 상무이사 법진스님은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으나 조계종의 일방적 관장하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경주=이윤호 기자)

본사 사명
황성록
 승 전락정보기술팀장
 <11월 1일자>
 차차석 조사자료부장
 의원면직
 롯데 객원 논설위원
 <11월 4일자>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삼성

삼성화재만이 드릴 수 있는 서비스-①

"이거, 어찌나?"
 몸은 홍콩인데, 짐은 런던!
 그런데, 영어는 Thank you가 고작이니...



삼성화재 우리말 도움서비스- 이제, 개인연금보험 가입자제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해외여행보험 가입자에만 제공해 오던 삼성화재 '우리말 도움서비스'- 6월 1일부터 개인연금보험 가입자제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세계적인 긴급서비스 전문회사인 AEA社와 제휴하여 의료안내, 여행안내 서비스에서 사고처리 안내까지 - 고객 여러분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의료안내 서비스** 전문의 안내 의료시설안내 의료인과의 전화 의료상담안내 치료안내, 국내가족과의 긴급연락
- 여행안내 서비스** 여권 재발급 안내, 분실물 회수안내, 출입국비자안내
- 사고처리안내 서비스** 보상을 위한 현지 구비서류안내, 보상절차 안내

삼성화재 '우리말 도움서비스'- 고객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좋은 보험회사 삼성화재만의 서비스입니다.

취약 - 342의 비행기에 탑승에 도착한 김 대리 - 입국 수속도 마치고 이제 짐만 찾으면 휴가가 시작되려는 순간. '와! 그런데 이게 어찌한 일입니까? 가더라도 가더라도 짐은 나오질 않고, 게다가 속이 복막하고 머리도 땀 도는 게 급제일인데 이 낯선 공항에서 손가락을 땀 수도 없고 -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짐은 어떻게 찾고, 병원은 어떻게 가나요? 누구 도와 줄 사람 없나요? -'